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믿음의 승리!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제2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13)

1. 이 기도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의 깊게 경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벧전 5:8). 시험은 물레 솜씨에 들어오는 암살자와 같다(눅 22:31). 기도는 죄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룩한 공포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아는 자들은 기도한다(고후 12:8~9).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시험에 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후 11:29~30). 둘째로 이 기도가 제시하는 것은 자비이다.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자비의 심령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지난 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비를 호소할 수 있다(마 7:21).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힘까지도 공급해 주신다(고전 10:13).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두려움,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자(마 14:28~31).

2. 어떠한 시험을 말하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인내, 신앙, 신명, 나를 죄에 빠지게 끌고 가는 것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옮겨 가실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삿 16:17,20).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안에서만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요 16:13; 잠 30:8~9). 때로는 심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에 놓여진다. 시험이 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약 1:2~3). 하나님의 자녀 양육 시스템 속에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창 22:1~2,16~18). 하나님은 확고한 믿음의 자발적인 충성을 원하시며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회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골 2:5~6). 시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시험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마 26:39).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강함이 약함이 된다(고후 8:9). 시련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고후 12:10).

3.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시련을 원하지 말아야 하며 시험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도록 내어준 죄가 기억난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자.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참 감사의 시작은 십자가 보혈

다음 주일(7월 4일), 맥추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1~5부예배)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맥추절(출 23:16)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롬 1:8). 특히 맥추감사주일과 성찬예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총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맥추감사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맥추감사헌금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서 스스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

신령한 예배를 위한 ‘두 가지 변화’

“우리가 그의 계산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토다”(시 132:7)

1. 예배는 예배실에서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집회 시 본당 1,2층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관 1층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탁아부가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주일2부예배(9:00)는 본당 1층에서

주일2부예배 시 본당 2층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본당 1층 앞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의 단비에 축축히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2010년 제3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김필리, 오후 3시



THE LORD'S SUPPER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1 Corinthians 11:23)*

The Lord's Supper is all about Jesus' followers celebrating His atoning death and the salvation it affords to those who trust in Him. In the course of this celebration believers use certain symbols, which are the bread and the cup. The bread represents Christ's broken body, and the cup represents His shed blood. Jesus made this important event with His own body. He asks us to "do this" celebration by remembering Him, worshipping Him, and fellowshiping with Him and His people. It's a special time for believers to gather together and obey Christ's commandment, and a serious time for believers to reflect on Christ's death and what it personally means to them.

The Lord's Supper replaced the Passover meal. God's people ate an unblemished lamb for their Passover celebration, which reminded them of their deliverance from slavery and salvation from death. Jesus Christ is the pure Lamb of God. "Clean out the old leaven so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1 Cor. 5:7). Jesus Christ is now our Passover. His sacrificial death delivers believers from sin and gives them eternal life. Jesus told His followers.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Lk. 22:15~16). Jesus' last supper started as the Passover meal, but ended as the Lord's Supper. After Pentecost the primitive church gathered together for the Lord's Supper.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Ac. 2:42). Sadly, the Corinthian church strayed away from properly celebrating the Lord's Supper. Paul heard of their selfish practices and specifically told them. "Therefore when you meet together, it is not to eat the Lord's Supper"(1 Cor. 11:20). The Lord's Supper is about God's grace and abundant giving free. It is a holy and humble gathering because the bread and cup that is given to each participant stands for Jesus' body and blood.

The Lord's Supper is referred to by churches around the world with different names, like Eucharist, Lord's Table, and Communion, but its purpose remains the same. Jesus sai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Rev. 3:20). Believers need to enjoy full fellowship with Jesus. David made a strong reference point concerning the honor and privilege of coming to the Lord's Tabl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have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ingkindness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Ps. 23:5~6). Jesus has prepared His table for you.

The Lord's Supper is not a man made celebration. It is not some brilliant idea or desire that some human came up with. Indeed, the Lord's Supper comes to you directly from the Lord Himself.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1 Cor. 11:23). Paul received the Lord's Supper from the Lord, and it has been passed on to you through Scripture. The Lord's Supper was not devised by a bunch of religious men discussing or formulating theological doctrines. The celebration of the Lord's Supper came straight from Jesus. On the day in which He was betrayed, Jesus instituted the Lord's Supper. It's hard to imagine such love.

My dear friends, who is going to join today's Lord's Supper? Only His people are allowed to partake in such a blessing. If you have betrayal in your heart, please repent and go to the Lord for cleansing. Carefully examine yourself. Even though Jesus knew Judas would betray Him, He still took the bread and the cup and gave thanks to His Heavenly Father. I hope each of you has this love in your heart. This Lord's Supper is Jesus' command. The Corinthian church gave preference to the rich over the poor, and Paul exhorted them. "But in giving this instruction, I do not praise you, because you come together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1 Cor. 11:17). Please put others above yourself, and don't let the Lord's Supper hurt you. Hebrews 12:2 gives us proper insight.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Amen. 

주의 만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 11:23)



김석환 목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에 신자들은 특정한 상징물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떡과 잔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며,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중요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식을 행함”으로 자신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은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특별한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유월절의 만찬

주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을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흠 없는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 5: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의 대속적 죽음이 신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5~16).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로 시작되어 주의 만찬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안타깝게도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기념하지 못하고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듣고 특별히 말했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고전 11:20).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신 풍성한 은총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겸손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임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주의 만찬은 성체, 주의 식탁, 성만찬 등과 같이 전 세계의 교회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동일함

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신자들은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인지 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전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5~6).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식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의 만찬은 인간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기발한 착상이나 소원도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고전 11:23).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주의 만찬을 전수받았고 이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주의 만찬은 어떤 종교가들의 논의로 만들어졌거나 신화적인 교리로 공식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당하던 날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주의 백성만이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배신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십시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떡과 잔을 들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을 더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간곡히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전 11:17).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주의 만찬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 12:2은 우리를 깨닫게 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

메시아의 죽음 33

예고된 흠여짐²
(스가랴 13:7)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흠여짐(메신)을 예고하셨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다(스 13:7). 이뿐이 아니다. 스가랴 9~14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임성할 때 온 백성이 기뻐하며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스 9:9).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부터 종교지도자들부터 배운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다. 이 말씀은 500여년 후에 성취되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막 11:9~10). 또한, “또 나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간헐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스 9:11)라는 예언도 성취되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으로 찔림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스 12:10)도 성취(요 19:34,37; 계 1:7)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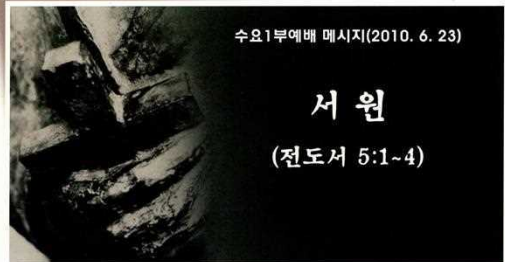
공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내 목자, 내 작은 자)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사 53:4,10).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것이다(막 15:34).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스 13:1).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씻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으며, 이는 갈보리에서 성취되었다. 어리석은 목자들은 세상에서의 축복을 외치며 양들을 속이고 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스 11:15~17).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작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라우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은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볼 가운데에 던져 그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스 13:7~9; 요 18:8~9).

스가랴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예언을 가르쳤던 종교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하였다. 그들의 시선은 말씀이 아닌, 전통과 권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인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기뻐할 때가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미 흠여졌고, 흠여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다(막 14:50).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은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막 16:24; 막 16:7). ‘예고된 흠여짐’에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삶의 대담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내 지식과 경험, 내 인격이 깨질 때 주님의 평화가 임한다(롬 7:24, 8:1~2). “주님, 완전히 깨져 기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6. 23)

서원
(전도서 5:1~4)

많은 사람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서원’(맹세)을 한다.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서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업적을 드러내며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서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 전도서 5:1은 “서원한 것을 값으로”(전 5:4)고 하며, 서원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권면하였다(전 5:5).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마 5:33~36). 서원이 가치 있게 보이겠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실제로 서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제아무리 서원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만들지라도 서원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영광의 복음(딤후 1:1~11),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평이 나고,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식의 서원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서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 **야곱의 서원** 자신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가 신세를 지었다. 떠돌다가 지쳐 어느 들에서 잠든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본 후 깨어났다. 그곳을 ‘벧엘’(창 28:19)이라고 명명한 뒤 야곱은 서원을 하였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22). 야곱은 배운 대로(창 13:18, 14:20)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서원을 하였다. 꽤나 멋진 서원이었지만 결국 이 서원을 통해서 야곱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닌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축복이었다. 이와 같은 서원을 한 후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검은 속색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어느 정도 재산은 모은 후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한다.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

에 몹시 불안했던 야곱은 압박근 근처에서 간절히 기도했다(창 32:10~11). 그의 기도의 핵심은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여전히 세상에서의 행통한 삶을 위해서 계산하는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다.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가장 먼저 자신이 서원하며 제단을 쌓았던 벧엘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벧엘 근처인 예즈못으로 갔다. 야곱은 그곳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우상을 버린 후에 벧엘로 올라갔다(창 35:1~3).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 **다윗의 서원**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생활을 하였다. 그는 가족들을 돌보며 수많은 야생동물의 위험을 받았다. 그때마다 그는 기도하였고, 울려퍼지는 먼지 가족들을 지켜내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왕이 된 다윗은 많은 죄를 범하였다.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 치사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다윗의 서원에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시 119:15~16). 그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다(잠 23:7). 말씀이 마음에 살아 있으면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된다(딤후 3:16~17).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히 3:15~17). 다윗의 서원은 말씀을 붙드는 통로였다.

● **다니엘의 서원**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 때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 세 명과 함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바벨론 왕궁에 거하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고비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절충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를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때 다니엘은 이방 음식으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서원하였다(단 1:8). 다니엘의 서원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서원이었다(마 5:13~14).

우리의 서원은 무엇인가? 축복과 존경을 얻기 위한 서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이렇게 서원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1~2). 이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심지어 많은 교회와 성도조차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서원을 남발하고 있다. ‘자야가 살아있을 때 서원(맹세)하게 된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서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박지 말고(고전 2:8), 세속이치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고전 4:1). 아멘.

국내외국인선교부

그들을 알고 싶다 Q&A

Q. 국내외국인선교부(외선부)는?

A. 매주 주일 10시 50분부터 본당 지하 1층 아멘홀에서 몽골, CIS(독립국가연합),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11개 나라의 외국인인 안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주중에는 각 나라 담당 교사들이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심방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있다. 안 영은이 전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Q.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A. 외선부라면 언어적인 면에서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국내 외국인 사역이 해외 선교와 다른 점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능통하지는 않으나 항상 배울 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기본적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배운 선교언어도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사역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맘으로 기도하고 심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Q. 외선부의 제철들은 어떻게 교회를 오는가?

A. 교사들 또는 주반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직접 전도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근교에도 있지만, 많은 분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버스타 전철을 타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먼 거리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Q.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외선부에 와서 외선부 영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나라 전도 지역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영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바란다.

Q. 외선부를 통한 은혜를 고백하면?

A. 중언교와 근처 식당에서 일하다가 혼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선부가 너무 좋아서 가끔 나오지 못할 때도 같은 중국 사람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갑니다. 외선부 내에 사랑이 많아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외선부 교사와 심방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조영파(중국)**

A.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에 의해 전도를 받아서 중언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언교회를 다닌 지 4년 정도 되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선부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황만경(베트남)**

A.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청년1부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외선부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외국으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소영(CIS-우즈베크)**

A. 중언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제 인생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들었던 가짜 복음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중국 영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권경(중국)**

허재·김성희 기자

두 번의 파송식을 받은 후

저희는 재심에 재심을 거듭하며 훈련을 받아야 했고, 거의 마지막에 선교지도 바뀌어 파송식도 두 번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첫 선교는 두려움으로 가득찬 채 시작되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는 전도 중에 불심 검문을 받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문전지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역지를 바꾸어 문전지사의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낮은 세계 지도를 꺼내 보이며 예수님 태어났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위치를 알고자 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의료담당 집사님에게는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 노인 한 분이 바닥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못다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복음을 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니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능력과 형편에 따라 예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주님을 모르는 영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저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주신 팀원들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후원회 성도님들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준희(집사, 13교구)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먼 외국에서 통역도, 차량도, 휴대폰도 없이 한 팀이 흠뻑 젖어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이 간섭하실 때에는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엔 차 없이 전도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돌직 썩을 지어 사역을 시작했다.

현지어는 물론 영어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어 처음엔 숙소 주변에서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다 점점 버스도 이용하고 택시도 이용하면서 꽤 먼 곳까지 나갈 수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전도지반 가지고 나가면 비가 멈추고, 식사할 때 쏟아지던 비도 식사가 끝나면 멈추었고, 팀원들과 길이 어긋나도 어딘가에서 마주쳐 합류하게 되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뒤에 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소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느끼며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송희명(집사, 5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4일(월) ~ 6월 23일(수)	19교구 2팀	김학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8일(월) ~ 7월 6일(화)	8교구 1팀	김광선
6월 28일(월) ~ 7월 6일(화)	20교구 3팀	권영주
6월 28일(월) ~ 7월 6일(화)	23교구 1팀	한홍연
6월 28일(월) ~ 7월 6일(화)	21교구 2팀	양승복
6월 28일(월) ~ 7월 7일(수)	17교구 1팀	이선호
6월 29일(화) ~ 7월 7일(수)	24교구 2팀	박민호
6월 30일(수) ~ 7월 9일(금)	18교구 1팀	안연식

중등부 학습·입교자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시기

6월 27일(주일)의 세례식을 한 주 앞둔, 21일, 세례자들 중 최연소에 해당하는 중등부 새학생들의 설렘은 마음을 들여보았다. 눈이 초롱초롱한 문수빈 학생(女, 3학년)과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성글성글 웃는 주요진, 김아람(男, 3학년)학생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Q1. 반갑네요. 학습 및 입교세례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어떤가요?
· 요진 : 매우 좋아요. 일단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 수빈 : 마음이 진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 아람 : 기뻐요. 아주 많아요.



문수빈

Q2. 예수님이 요진, 수빈, 아람이를 위해서 구원해주신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나요?

· 요진 :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저는 2/3 정도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 수빈 : (담대한 말투로) 예, 이유는, 제가 힘들 때 기도하면 더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될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주요진

· 아람 : 아니요.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점점 믿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Q3. 여려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 요진 : 나를 살려 주신 분이예요.
· 수빈 : 나를 돌봐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 아람 :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솔직히 제가 교회에 어떻게 오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매주 열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Q5. 마지막으로, 모두 세례식을 앞두고, 예수님께 한 마디씩 해 볼까요?

· 요진 : 제가 언제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 수빈 : 신앙 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아람 :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주세요.



김아람

Q4. '학습 또는 입교'란 어떤 것이라고 배웠나요?

· 요진 : 세례 받는 거요. 머리에 물을 부려주고, 또 나중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것을 받게 되면 믿음이 더 성장한다고 배웠어요.
· 수빈 : 저는 진정한 '교회인'이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 아람 : 교회의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지은 죄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는 거라고 배웠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너무도 솔직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믿고 싶다는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6월 27일(오늘)에 있을 학습세례식을 통해 독립된 신앙으로 예수님과 1:1 대면하는 사랑스런 중등부 새학생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취재·이선희 기자

집사회 수련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록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벧후 3:10).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적과 함께 내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보였으나 나 중심의 주님만을 믿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 기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그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인간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겉으로 종교적 모습만 보이는 안전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해 주셨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2:31)의 전조로 거대한 베푸미와 재앙과 유대를 환하게 하는 심각한 가뭄을 보며 요엘은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을 2:12)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놓쳐버렸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회개로써 마음을 씻으며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나'라는 우상과 인간의 감각과 모습을 떠나 오직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집사회 수련회는 존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소원한다.

(이희우(안수집사, 14교구))

총동원전도집회

그렇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교구 총동원전도집회의 진행을 맡은 사람들은 6주 전부터 모여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주 모임을 가졌고, 6주 전부터 달일까지의 일정을 매주 단위로 계획해서 진행시켜 나갔다. 진행은 순조로웠고 협력하는 일꾼들도 어찌나 적극적이던지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도집회 당일, 우리는 먼저 주일3부예배 직후에 분당 옆 계단에서 총동원전도집회를 홍보하며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드디어 총동원전도집회는 시작되었고 준비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님의 진행되자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한양으로 시작해서 은혜로운 기도가 있었고, 고등부 학생들의 위임 찬양, 남성중창단의 찬창,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에 이르기까지 수준급의 특송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목사의 힘찬 열정적인 설교 말씀은 큰 은혜를 주었고, 총동원전도집회의 클라이막스인 새가족 소개 시간이 되자 전도자와 함께 새가족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때 어떤 집사님의 말씀이 내 귀를 쫓겨 세우게 했다. 한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 여러 해를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자매가 이반에 자진해서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여 같이 왔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30여 명의 새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은혜의 잔치를 천히 베풀시고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한 감동이 밀려와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은애(집사, 22교구)

Jesus is the Answer, 주중 어린이 영어교실

제2교육관에 들어서니 영어로 재깁재깁 이야기는 소리가 들린다. 평일인데 무슨 일이지 싶어 들어가 보니 영어수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들의 영어수업이 어느 학원과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어교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장영선 선생님(영어전문교사)을 만났다.

주중 어린이 영어교실은?

초등 1~5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중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수업은 주 3회로 하루 2시간씩(Phonics반은 주 5회, 하루 1시간씩) 진행돼요. 개인상담과 레벨테스트를 거쳐 반이 배치되며 총 9개 반(Phonics 1~3, A1~3, B1~2, C1)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교역자 자녀(P.K 등)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모님들이 그룹별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자 체계적인 교재 개발에 착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에게도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모님들이 모여서 교재를 만들고 원어민에게 교재를 검증받는 등 많은 손길을 거쳤어요. 정말 주님의 은사로 만들어졌어요.



수업 진행은?

선생님의 지도를 시작으로 1시간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나머지 1시간은 영어 듣기, 쓰기, 문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주기도문 또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마치고, 영어로 찬송도 하구요.

선생님들은?

영어를 전공하신 내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열한 분의 보조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더욱 많이 필요해요. 영어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그럴지 모르더라도 봉사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교재는?

교재는 성경과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해 교육과정(총 4차 과정)을 만든 후 자체 제작(집필 및 편집, 인쇄)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들이 교생이 많으실거요.



다른 영어 학원과 다른 점은?

복음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좀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아이들이 영어교실에 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수업시간마다 도우미로 섭기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품어 주세요. 선생님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지요.

미국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태솔(TEFOL, 영어전문 교사과정)을 수료했어요. 설교사와 비전통을 가지고 영어를 통해 제자를 양육하고 싶었거든요. 말씀을 영어로 배운다는 것은 그 어디다 할 수 없는데 말씀 안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 부분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신복경 선생님(영어전문교사)**

공식사항 및 출결상황 등의 문자를 보내고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통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업 후에는 보조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요. "영어로 예수님을 배워서 외국에 나가 건드라고 싶다"는 어떤 학생의 이야기 듣고 온애를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이 기본 표정으로 다니니 보는 것도 즐거워요. **박문미 선생님(보조교사)**

2년째 다니고 있어요. 오늘 게임도 하고 시험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어요. 수업은 재미있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Lisa(이시연, 1학년)**

오늘은 강소에 대해 배우고 영어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죄와 슬픔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필름보 나눠서 게임을 했는데 저서 조금 속상했어요. **Grace(조은혜, 2학년)**

이전에 영어학원 다녔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도 생각 정도였어요. 학원은 시간도 너무 길고 재미있어요. 그대 비하면 우리 영어교실은 아주 좋아요. 성경을 영어로 배우는 것도 좋고,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잘 맞춰 주셔서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아요. **Amy(조영민, 6학년)**

주중 어린이 영어교실의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고, 선생님들은 복음 안에서 즐겁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자신의 자녀들처럼 보살핌니다. 그곳은 십자가의 향기(고후 2:15)로 진동했고,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였다. 수준 높은 영어와 더불어 진리의 복음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곳이 궁금한가? 제2교육관으로 오면 모든 비밀은 풀릴 것이다.

최재·한영아 기자



십자가의 길

맥추감사 신앙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후, 새 땅인 가나안에서 처음 얻은 양식은 보리였다. 맥추(麥秋)는 곧 보리 추수를 의미한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명명(창 23:16, 33:22)하신 절기 중 하나로 유월절이 끝나고 보리를 기르는 절기다(맥추기간은 약 50일 정도).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낸 사람만이 맥추절을 맞이할 수 있다. 유월절의 은혜로 살아 남지 못한 사람은 어떤 열매에도 상관없는 사망 아래 처하기 때문이다(창 12:13).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창 2:5). 맥추감사 신앙은 농사를 짓듯 희생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땅을 갈리니 추수를 한 다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모여와 맥추절을 지키듯,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의 합당한 신앙이며, 감사하는 삶의 실천이다.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59	홍정은	22	청년1부	이영은(1)	781	김경국	11	고등부	김유영(12)
760	전유정	22	대학부	조성민(1)	782	이규호	10	초등1부	김현옥(10)
761	최민서	10	청년1부	권아소(14)	783	박현식	14	청년1부	김석태(14)
762	이호정	17	대학부	김지혜(2)	784	김지성	22	청년2부	주민재(23)
763	박본은	8	청년2부	강민영(17)	785	신영호	22	청년2부	박준호(22)
764	김영남	11	청년1부	이종영(8)	786	신영호	11	중등부	정영재(11)
765	문예경	23	청년1부	이순기(7)	787	김동희	13	초등1부	김은옥(23)
766	문은주	25	사람부	신준호(5)	788	김동희	17	청년2부	양은혜(23)
767	최희현	22	청년1부	김영선(15)	789	이준성	1	청년1부	조옥환(11)
768	김지영	13	청년2부	장지관(10)	790	최지영	23	청년2부	이연화(11)
769	최혜민	13	초등1부	장지관(10)	791	정승규	3	청년2부	이순진(1)
770	배성진	19	청년2부	장승준(10)	792	유지영	9	청년1부	유민석(11)
771	한윤서	9	중등부	김재영(8)	793	권민하	21	청년1부	박옥희(13)
772	이동은	5	청년1부	한윤서(5)	794	윤은경	2	청년1부	신정옥(10)
773	정지연	5	영아부	한정호(5)	795	한정호	1	청년1부	김영재(11)
774	이소희	23	사람부	박민호(24)	796	안성진	14	청년1부	이화경(7)
775	김윤미	1	청년1부	김종민(17)	797	신지연	18	청년2부	한정숙(9)
776	정은주	23	청년1부	전순희(2)	798	김민아	1	청년3부	최영자(6)
777	김수정	1	청년1부	전순희(2)	799	최영자	6	대학부	김지현(5)
778	박현준	18	청년2부	김영미(20)	800	문은주	22	청년2부	이윤성(1)
779	문선미	13	청년1부	장영민(13)	801	전진희	22	청년2부	이유정(3)
780	홍정주	9	청년1부	장영민(13)	802	문정희	22	영아부	이유정(3)

* 중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0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